# 여래만이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⑫ 완전한 열반

"아라한은 부처님께 귀의(歸依)하였으나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온갖 것에 대한 행이 없으며 두려워하는 생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나를 해하려 함과 같으므로 아라한은 완전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세존이시여, 의지할 데를 구하지 않는 이에게 의지하는 것인데, 저 중생들은 의지한 데가 없으므로 가는 데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이고, 공포를 느낌으로 의지할 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라한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므로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辟支佛)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라한 · 벽지불은 다음 생에 나는 일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일이 있으며, 다음 생에 나는 범행(梵行)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순일하지 못하고, 일이 끝나지 못하였으므로 해야 할 것이 남아 있고, 다른 것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며, 끊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열반의 세계(涅槃界)와는 거리가 머나이다.

그 까닭을 말하면, 오직 여래 · 응(應) · 정등각(正等覺)만이 반열반(般涅槃)에 들 수 있사오니, 온갖 공덕을 모두 성취한 까닭이오며, 아라한 · 벽지불은 온갖 공덕을 성취하지 못하였지마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여래만이 반열반에 들 수 있사오니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까닭이오며, 아라한 · 벽지불은 한량 있는 공덕을 성취하지 못하였지마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여래만이 반열반을 얻었사오니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 까닭이며, 아라한 · 벽지불은 생각할 수 있는 공덕[思議功德]만 성취하였지마는 반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여래만이 반열반을 얻었사오니 온갖 끊어야 할 허물을 모두 끊어 버리고 제일가는 청정을 성취한 까닭이오며, 아라한 · 벽지불은 남은 허물이 있으므로 제일가는 청정이 아니지마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여래만이 반열반을 얻으시어 온갖 중생들이 우러러보게 되어 아라한 · 벽지불 보살들의 경계에서 초월하였사오며, 아라한 · 벽지불은 열반계와의 거리가 멀지마는, 아라한 · 벽지불이 해탈하는 네 가지 지혜의 끝 간 데를 관찰하여 소생하여 쉴 곳[蘇息處]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역시 바로 여래의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며, 아직도 끝까지 이르지 못한 말씀입니다."

대승에서의 성문과 연각의 이승(二乘)의 평가는 이 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승만 부인의 이러한 말은 〈법화경〉에서 말한 부처님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 이승이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생사에 대한 공포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아라한과 벽지불이 대승의 범행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소승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이타원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범행(梵行)이란 수행자의 청정한 행을 말하는 것으로 계행을 잘 지키고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완전한 열반을 얻는 것은 부처님 경지에서 가능한 일이고 성문이나 벽지불은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공덕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불가사의한 여래의 공덕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승의 수행을 칭찬 격려하면서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방편상에서 말씀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곧 부처님의 설법이 수기설법(隨機說法) 혹은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 듣는 사람의 근기(根機)에 따라 차별되게 법을 설하므로 듣는 사람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그에 맞는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마치 의사가 사람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 한다.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상황 따라 달라 때로는 돈교(頓教)의 법문을 하고 때로는 점교(漸教)의 법문을 하며 어떤 때는 현교(顯教)의 법문을 하며 어떤 때는 밀교(密教)의 법문을 하는 것이다. 또 〈입능가경〉에는 부처님이 말씀으로만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불국토에 따라 침묵으로 설법을 하고 웃음이나 기침, 하품 등으로도 설법을 하며 눈썹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설법을 한다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서원에 의한 보살의 원생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㉟ 관음신앙의 올바른 견해

**원생(願生)의 원인(原因)**

무아설을 주장하지만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를 통해 외계의 실재를 인정하고 있는 부파불교시대의 〈설일체유부〉에서도 "보살은 발원(發願)하여 악취에 태어난다."고 원생(願生)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파불교의 〈대중부〉에서도 "보살은 유정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원하여 악취에 태어나며, 뜻에 따라 능히 갈 수 있다."고 서원과 의지의 실천으로 원생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불교시대와 부파불교시대를 이어온 서원과 원생의 사상은 대승불교시대에 들어오면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의 많은 대보살들이 대거 출현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승경전인 〈묘법연화경〉 등에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묘법연화경〉 '수학무학인기품'에 보면 대보살이 원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였지만,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이 세상에 원하여 태어나, 〈묘법연화경〉을 널리 분별하여 설한다." 중생을 위한 대비심으로 인해 원생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품반야경〉에서도 원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부처님처럼 변신하여, 지옥 속의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축생, 아귀 속의 중생을 위하여 설법한다."

특히 이 경에서는 원생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화신(化身) 사상이 결합된 서원 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과 원생의 사상은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경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원생(願生)이 이루어지는 수행의 경지**

불자 여러분!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서는 보살이 수행을 통해 원생할 수 있는 보살지(菩薩地)의 경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8지에 머물 때 5법을 구족하게 한다. 그 중 하나는 '중생에게 상응하는 선근에 따라 몸을 받는 것'이다."고 설한 것처럼, 대비심에 바탕을 둔 보살이 수행을 통해 8지보살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서원에 의해 원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설명하는 8지(八地) 보살에 관한 내용은 〈화엄경〉 '지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에서는 중생들이 정각을 얻어 부처가 되기 위해 닦는 수행단계는 10신(十信) · 10주(十住) · 10행(十行) · 10회향(十廻向) · 10지(十地) · 등각(等覺) · 묘각(妙覺)의 52위(五十二位)의 수행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8지 보살은 십지(十地) 중에서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단계를 경지를 말합니다. 이 8지에 오른 보살은 수행을 완성하여 몸과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의미로 '부동지(不動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깊이 있는 실천을 한다고 해서 '심행(深行)보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8지 보살의 단계에 오른 보살은 세속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 등의 이승(二乘)의 경지로서는 전혀 깨트릴 수 없는 경지입니다. 보살이 수행을 통해 이와 같은 8지보살의 부동지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스스로 원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⑫ 올바른 견해의 경 ②

## 견해에 움직인 적 없는 마음

**"자양분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미 생겨난 뭇 삶의 생존을 위하고 다시 생겨나게 될 뭇 삶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네 가지란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적인 자양분, 두 번째로는 감촉의 자양분, 세 번째는 의도의 자양분, 네 번째로는 의식의 자양분이 있습니다. 갈애가 생겨나므로 자양분이 생겨나고 갈애가 소멸하므로 자양분이 소멸합니다. 자양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야말로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이니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올바른 견해의 경〉

'나'라는 자아의식은 지각하든 지각하지 않든 언제나 특별한 상태의 자양분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태어남'을 반복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많은 태어남을 모르고 있다. 왜 뭇 삶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까? 아마도 갈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과 저곳에서 갈애하는 탐(貪)은 그 곳이 늪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늪이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뭇 삶은 탐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올 궁리를 할 것이다. 하지만 뭇 삶은 자양분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자양분을 가지기 위해 갈애하고, 갈애에 집착하고, 더 많은 갈애를 일으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앞에 보이는 '많은, 큰' 것이라는 갈애에 빼앗긴 정신활동을 일으키게 되어, 조삼모사(朝三暮四)와 조사모삼(朝四暮三)이 동일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한다.

여덟 가지 바른 길은 갈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이 만들어 놓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팔정도 앞에 '바른'이라는 단어는 오온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다. 이때의 '바른'은 '중도'를 뜻하는 언어이다. 오온이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견지하는 견해를 소멸하고자 하여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때, 그 견해는 소멸하는 것이지, 어느 한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견해란, 어떠한 견해에 움직인 적이 없는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알아차림을 두는 것이다. 만약 그 알아차림이 순일하지 못하다면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움직임 없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갈애를 자양분으로 유지되는 물질, 감촉, 의도, 의식은 그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아닌, 그 일어남 없는 소멸을 이루게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양분은 자립으로 완성되는 것이 없고, 의지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을 오온이라고 알고, 그 오온이 바른 가르침을 들어 완성을 이룰 것이라 믿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우주를 가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같은 것을 찾는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모른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주가 무엇이요?" 하며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사람의 자동차를 보면서 빙긋이 웃을 것이다. 그것은 갈 수 있다고도 못하고, 갈 수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는 자는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버리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니 '간다, 못 간다'의 개념을 떠나서, 아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은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기꺼이 버릴 수 있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성제와 팔정도와 십이연기로 오온이 내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다.

착하다는 것 착함이 아니고 악하다는 것 악한 것이 아니네
'나'라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착하다는 것 착함이 아니고
'나'라는 상을 가지지 않으면 악하다는 것 악함이 아니네
위치에 따라 전변(轉變)하는 견해 탐을 따라 변하는 욕망일 뿐
바른 견해가 될 수 없고 바른 견해는 위치가 변하더라도
아상을 나라고 말함이 없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